

# 코로나 시대 더 뜨거워진 자격증 열풍

### 취업난에 자격증 취득 줄이어 2개월 400만원에 필라테스 강사 올 광주·전남 265개 신규 등록 우후죽순 민간자격 피해 요주의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가까이 수입이 불안정한 보컬 트레이너 A(33·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최근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을 따다. 올 여름 2개월 동안 180시간 교육을 들으며 필라테스 강사 공부를 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들인 돈은 400만원. 그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게 필라테스 학원"이라며 "본업 일이 생길 때까지 필라테스 개인 과외를 부업 삼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에 민간 자격증이 호황을 맞고 있다. 사회경력 이른바 '스펙'을 쌓으려는 취업준비생과 예비 창업자들을 겨냥한 민간 자격증이 매년 5000개 넘게 생겨나는 가운데 국가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과정 품질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지난 3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곳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5만6314개, 운영기관은 1만1576곳에 이

른다. 민간자격등록제를 시작한 지난 2008년에는 655개 자격이 생겨나더니 2011년 10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 등으로 해마다 5000개 넘는 신규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자격증은 5460개이며, 전년도에 6079개가 생겨났다.

광주·전남에도 자격증 열풍이 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둔 기관(개인·단체·법인)의 민간자격은 광주 287개·전남 68개 등 355개가 생겨났다. 이는 전년 257개(광주 176개·전남 81개) 보다 38.1%(98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광주 신규 민간자격은 287개로, 등록제 시행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도 11월 말 기준 광주 215개·전남 50개 등 265개 자격이 신규 등록됐다.

지역에서 검증된 자격증을 살펴보니 광주에서는 실내운동과 문화 관련 부문에 응시자가 몰렸고, 전남에서는 주로 드론과 관광부문 관련 자격증이 인기를 끌었다.

광주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두뇌훈련지도사'와 '다이어트코치', '예절문화지도사'에 각각 140명, 130명, 110명이 응시해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광주에서 응시자 수 상위권에 든 신규 자격들은

'고용기획전문가' (48명 중 47명 취득), '세계놀이 문화융합지도사' (25명 전원 취득), '아동요리지도사' (20명 전원), '아들러상담전문가' (18명), '임산부필라테스지도사' (12명), '양금플라워지도사' (11명), '창의놀이지도사' (10명) 등이 있었다.

지난해 전남지역 한 법인이 시행한 '드론축구지도사' 자격에는 315명이 응시해 94.6%인 298명이 합격했다. 이외 'SNS 마케팅 실무 전문가' (87명 중 86명 취득), '드론교육지도사' (80명 중 73명), '온라인마케팅실무전문가' (59명 중 55명), '도보관광자원해설사' (47명 전원 취득), '홍차허브문화교육지도사' (28명 전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17명 전원), '로봇코딩지도사' (16명 전원), '캘리그라피' (7명), '픽스호크마스터' (자율주행 관련·5명) 등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워라밸' 현상에 맞춰 '1인 1자격증 마련하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남발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 관계자는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식의 민간자격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민간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민간자격서비스(pqi.or.kr)에서 등록정보와 소요 비용, 환불 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농특산물 브랜드 '빛찬들' 수도권 홍보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기운데)와 송정·평동·동곡·본량·대촌농협 등 5개 지역농협은 지난 27일까지 사흘 동안 수도권 대형 유통센터와 도매시장을 찾아 광주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빛찬들'을 홍보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3개월 연속 상승세

### 연말 특수 기대감 반영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에 못 미치는 데다, 코로나19 확산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 중소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12월 경기전망 조사를 한 결과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99.0으로 전월(92.4)보다 6.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72.2)과 비교하면 2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0월부터 3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94.0)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96.8, 전남은 전월(89.7)과 비교해 12.7포인트 오른 102.4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100.5로 지난달과 비교해 5.0포인트, 비제조업은 97.7로 8.3포인트 올랐다.

항목별로 수출(98.2→95.0)은 다소 떨어졌으나 내수판매(91.9→99.5), 경상이익(85.8→92.1), 자금 사정(86.3→91.4) 등은 올랐다.

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 애로(복수 응답)로 원자재 가격 상승(56.0%), 내수 부진(52.2%), 업체 간 과당경쟁(48.3%), 인건비 상승(45.0%)이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월(51.0%)과 비교해 5.0%포인트 높아졌다. 광주·전남 중소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0.2%로 전월(69.5%)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9%포인트 상승했다.

광주는 69.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전남은 72.3%로 1.6%포인트 각각 가동률이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탄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수급 애로, 내수 부진 등에도 '위드 코로나' 시행과 연말 특수 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중기중앙회·광주시·전남도 방역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며,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올해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공고 이전이라도 올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가입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광주시는 월 2만원씩 6개월 최대 12만원, 전남은 월 4만원씩 6개월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돼 돌려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보이스피싱 경각심 키우기...광주은행 '톡톡 공감 한마당'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기운데) 임직원들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송프로와 함께하는 톡톡 공감 한마당 시즌2'를 열어 영화 보이스를 관람하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광주은행 제공>

## 10월 광공업 생산지수 광주 줄고 전남 늘어

광주 광공업 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를 포함한 6개 시도에 불과했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달 보다 광주는 4.3% 감소하고, 전남은 11.0% 증가했다.

전국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가운데 광주를 포함한 울산(-5.6%), 충남(-5.1%), 강원(-1.0%), 대구(-0.8%), 대전(-0.7%) 등 6개 시·도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 9월(-13.7%)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산업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4.1%)과 담배 제조업(-27.2%) 등의 생산금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지난 9월(-30.7%)에 이어 지난달은 19.8% 줄며 두 달째 생산액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23.7%)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0.3%)은 생산이 증가했다.

전남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생산금액이 아예 없었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3.2%),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광업(-27.9%) 등의 타격이 컸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21.5%)과 비금속광물 광업(7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6.4%) 등은 생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39.01 (-70.31)
↓ 코스닥	965.63 (-26.71)
↓ 금리 (국고채 3년)	1.799 (-0.045)
↓ 환율 (USD)	1187.90 (-5.10)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